



전남 고흥만 풀무치 집단 발생, 공동방제 긴급 돌입

- 고흥만 간척지 일원 100헥타르 발생 추정
- 농촌진흥청, “긴급 공동방제 총력, 인근 농경지로 확산 차단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라남도 고흥만 간척지(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일대에 메뚜기과(科) 곤충 ‘풀무치’ 집단 발생이 확인됐다고 하며, 인근 농경지로 확산을 차단하는 긴급 방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이번에 발생한 풀무치는 주로 간척지 내 비포장도로와 수로 주변, 잡초 군락 등에서 군집형으로 서식하고 있다. 발생 면적 추정치는 약 100헥타르(ha)로, 고흥만 간척지 전체 작물 재배면적(1,397ha*)의 약 7%에 해당한다.

* 조사료 1,044ha, 벼 350ha 등

풀무치 집단 발생 원인은 5~6월 고온 현상과 잦은 비로 토양 내 수분이 증가하면서 산란과 부화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월에 강수량이 많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부화하기 때문에 군집형 발생률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 8월 전남 해남군 산이면(20ha)에서 어린 풀무치(약충)가 다량 발생해 농경지 피해가 있었고, 2025년 6월 말에도 고흥군 고흥읍 일대 100헥타르(ha)에서 약충이 발생해 긴급 방제한 바 있다.

현재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 6월 말까지 고흥만 간척지 일대에서 공동방제를 통해 풀무치 발생 저감과 농경지로의 이동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간척지 내 법인 소유 논은 자가 방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고흥만 일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선제 예찰을 벌였고, 풀사료 수확 후 신속 방제를 위해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했다.

풀무치는 메뚜기목 메뚜기과에 속하는 대형 곤충(수컷 5cm, 암컷 6.5cm)이다. 성충 때 자갈이 섞인 사질토 속에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 보통 5월부터 부화하기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진다.

약충은 옥수수, 강아지풀, 억새 등을 선호하며 섭식량이 매우 많다. 보통 평지의 풀밭이나 산기슭에서 녹색이나 갈색의 몸 색깔로 서식하지만,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 ‘군집형’으로 색깔을 바꿔 간척지나 하천 주변 이동 후 농작물을 가해한다.



[녹색형]



[갈색형]



[군집형]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현재 돌발해충 확산 차단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정밀한 예찰과 적기 긴급 공동 방제로 농경지로의 이동을 막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풀무치 발생 및 생태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40)
		담당자	지도사	박환규 (063-238-1045)

□ **학명(Locusta migratoria)**

- 메뚜기목 메뚜기과에 속하며 수컷은 5cm, 암컷은 6.5cm의 대형 곤충으로 섭식량이 많으며 옥수수, 강아지풀, 억새 등을 선호함
- 풀무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녹색형과 갈색형 그리고 밀도가 높을 때는 군집형 체색(몸색깔)을 나타냄

□ **분포 및 생태**

- (분포) 우리나라 전역으로 특히 전남, 전북, 경남, 충청 남부 평야지대
 - * 평지의 풀밭이나 산기슭 초원에 서식하나, 군집형 출현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은 간척지 또는 하천변으로 산란 및 섭식활동에 알맞아야 함
- (산란) 자갈이 섞인 사질토 선호, 주변에 억새, 갈대 등 벼과 식물이 풍부하고, 특히 잎이 넓은 사료작물 재배 시 발생이 많음
- (생태) 한번에 수 백개의 산란, 땅속에서 알로 월동하고 남부지방은 5~10월까지 발생, 9월에 성충밀도가 가장 높음

토양수분과 산란 관계

- 토양수분을 10일(토양 수분함량 25.1~46.9%), 20일(19.5~45.1%) 간격으로 공급하며 부화량을 비교한 결과, 물을 10일 간격으로 공급한 처리에서 40%정도 부화량이 많았음
- 5월에 강수량이 많을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부화되어 군집형 풀무치 발생 가능성이 높음(토양수분이 높을수록 산란에 유리)